

[2026추천고교] '신흥 강북대표' 선덕고..수시+정시 투트랙체제로 킴점점'

✎ 이상현 기자 | ⓒ 승인 2025.10.24 19:00

'2025수능만점자까지 배출'..재학생 중심 실적 눈길'

[베리타스알파=이상현 기자] 강남3구로 대표되는 교육특구가 독식하는 대입판도 속 강북의 대항마로 선덕고가 급부상했다. 지난해 29명의 서울대 합격자와 26명의 의대 합격자로 강북 대표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2019수능에 이어 2025수능까지 만점자를 배출하며 전국 명문의 반열에 올라섰다. 지난 10년간 수능 만점자를 2명 배출한 선덕고는 대원외고 포항제철고 등의 전국 명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특히 전교생 95% 야간자율학습체제로 사교육을 차단하고 공교육만으로 대입을 대비하는 선덕고의 지난해 만점자가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실감할 수 있다. 교육특구 못지 않은 대입실적으로 '강북대표'로 급부상한 선덕고의 비상이 주목되는 이유다.

대입실적이 재학생 위주라는 점이 선덕고의 경쟁력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정시 위주의 실적으로 N수생이 강세를 펼치는 강남3구와 달리 N수생보다 재학생의 실적이 더 뛰어난 상황. 진학실적 대부분이 재학생의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학교의 경쟁력을 실감할 수 있다. 사교육에 의지하는 강남3구와 달리 공교육만으로 사교육 중심 교육특구에 맞서는 실적을 내면서 시선을 끌수 밖에 없다. 실제 2025대입 기준 서울대 합격자 29명 가운데 재학생이 24명이다. 재학생 한정으로 전국 톱5에 들어오는 실적이다. 의대 합격자 26명 가운데 22명이 재학생으로 통상 N수생 실적이 두드러지는 의대에서마저 재학생 실적이 압도적이었다. 2024대입에서 36명의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며 고교현장에 파란을 일으킨 데 이어 2025대입에서 다시 한번 실적으로 실력을 입증한 것이다.

재학생 중심의 우수한 실적에 더해 수시와 정시 균형 잡힌 대입실적도 선덕고의 무기다. 수시 정시 각각 강세를 보이는 고교는 있기 마련이나 수시+정시 모두 실적으로 증명되는 곳이 드문 상황.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 프로그램과 내신에서 수능으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수시+정시 투트랙 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게 선덕고를 향한 교육계의 평가다. 서울대 합격자를 보면 2022학년 18명(수시8명/정시10명), 2023학년 27명(8명/19명), 2024학년 36명(19명/17명), 2025학년 29명(9명/20명)의 추이로 정시 위주의 대입판도에 발 빠르게 대비해 정시실적이 다소 우위인 측면이 있긴하나 수시 역시 안정적인 합격생 배출로 정시 못지않은 수시체제를 확립했다고 보여진다. 송창현 선덕고 교장 역시 "수시, 정시 모두 대비를 하는 학교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시켜 진학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학교는 드물다"고 강조한다.



<재학생 위주의 '압도적 대입실적'.. '수시+정시 투트랙 체제'>

선덕고의 강점이라면 재학생 위주의 입시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다. 지난해 서울대 합격자수 29명 가운데 24명이 재학생이다. 전체 합격자 수로 봐도 전국 11위의 실적인데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 전국 고교 가운데 한 손에 들어온다. 2024대입에서는 36명이 합격하며 전국 톱5를 기록했다. 재학생 실적으로도 톱 5로 학교 자체의 경쟁력을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 의약계열에는 32명이 합격했다. 의대 26명, 약대 5명, 치대 1명의 실적이다. 의대 26명의 경우 재학생 합격생이 22명, 졸업생이 2명으로 통상 졸업생 비율이 높은 의대 실적마저도 재학생이 두각을 나타냈다.

재학생 실적에 더불어 수시와 정시 균형 잡힌 대입실적도 선덕고의 무기다. 먼저 내신등급 3.6등급의 고대 합격, 4.44등급의 서성한 합격 등 고도에 오른 수시 학종 실적이 철저한 학생부 관리를 입증한다.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만드는 생동감 넘치는 학생부의 경쟁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선덕고는 단순 강의식 수업에서 한 발 나아가 독서, 토론, 과점형 수행평가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이 학생 참여를 이끌고, 자연스럽게 학생부 활동의 질이 높아지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식뿐만 아니라 사고력, 표현력, 협업 능력까지 두루 갖춘 인재로 성장이 가능한 교육환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각 교과에서 진로와 연계된 탐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며 학생 개인의 관심사와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기록을 만드는 데 주력하기에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비교과 활동 역시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학생 주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생생한 학생부의 자양분이 된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은 교과 연계와 진로 탐색의 장이 되고 융합인재프로그램, 진로수업/자율진로활동, 공학 의생명 환경 등 맞춤형 트랙은 학생 개인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재반 영재학급 아카데미 공학리더 활동 등 차별화된 심화 프로그램 역시 고난도의 탐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학문적 성취와 함께 논리적인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어 학생부가 탄탄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진정성 있는 진로진학 지도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학생의 활동을 형식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3년간 축적된 과제/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개별 생기부를 설계한다. 해당 데이터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선덕고 진로진학 사이트에 축적되며, 교사나 학생이 함께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수시 전형을 찾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선덕고의 수시 실적이 우수한 이유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실적 역시 우수하다. 2학년부터 정시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공부가 자연스럽게 수능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학생 수능만점자 배출이 선덕고 학습지도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앞서 2019학년도에 한 차례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바 있어 2명의 만점자 배출 고교다. 포항제철고 대원외고 등 전국 명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실적이다.

학력평가/수능 출제위원을 역임한 열정있는 교사를 다수 보유한 점이 정시 경쟁력을 올리는 요소다. 열정 넘치는 교사진이 직접 수업을 이끌며 단순 내신 관리 차원이 아닌 공부 자체가 자연스럽게 수능 실력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수업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2028대입 개편에 대비한 '통합사회' '통합과학' 교재를 자체 제작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정시 집중 대비 방과후 수업' 역시 정시 대비에 효과적이다. 겨울방학을 포함해 총 1~5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학생 수준에 맞춘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수능 실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린다.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야간자율학습 역시 선덕고의 특징점이다. 교사의 밀착 관리를 필두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교생 95%가 참여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급변하는 대입에 대응하고 있다. 기숙사가 없음에도 마치 기숙사 운영의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고교학점제 완벽 대응'>

선덕고는 고교학점제에 완벽 대응하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학생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동시에 학생들이 각 과목의 이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과목 선택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했다. 고교학점제가 낯선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교학점의 가이드라인 제공에도 적극적이다.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과정선택 설명회를 열어 투명성 있는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다.

선덕고만의 특색 있는 교과과정도 눈에 띈다. 1학년 전교생은 현대모비스가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한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탐구'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이수한다. 2학년에는 '공학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개설해 연계성과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상위권 학생을 위한 고급 과목 개설도 주목할 만하다. 특목고 선택과목인 과학과제연구 고급미적분 고급대수 전문수학 고급물리학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등 교과 운영을 통해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역량 강화' 교내 프로그램 '주목'.. 창의융합형 인재육성부터 진로전공 탐색 특화까지>

선덕고는 재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1~2학년 대상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한다. 1학년 댄 수학/과학/융합 인재반 각 20명씩 60시간, 2학년은 수학/과학/융합 영재학급 각 20명씩 100시간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학년 수학 인재반에서는 사물인터넷/자율주행자동차 등 과제를 연구한다. 과학 인재반은 과학실험/자율주행자동차, 융합 인재반은 미디어 리터러시/과학실험/인공지능 과제 등을 접한다. 2학년에는 영재학급 캠프를 운영한다. 수학은 로봇/머신러닝/피지컬컴퓨팅에 더해 로봇캠프, 과학은 심화과학실험/머신러닝/전산물이에 생명과학캠프, 융합은 통계분석/인문학/과학실험에 인공지능캠프를 실시하는 식이다.

진로전공 탐색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연공학 아카데미와 자율주행 공학리더 2개의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하다. 학년별 각 20명씩 60시간으로 운영한다. 자연공학 아카데미는 창동 청소년센터 연계 SW교육을 비롯해 로봇/IOT/3D 교육 등이 마련된다. 자율주행 공학리더는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자율주행 논문대회 등에 참가한다.

<정원내 385명 모집.. 일반 308명, 사회통합 77명>

선덕고는 올해 정원내 기준 385명을 모집한다.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다. 전형별로 일반이 308명, 사회통합이 77명이다. 사회통합의 경우 모집인원 미달 시 모집인원에서 지원자 수를 제외한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이월해 선발한다.

서울 광역자사고인 선덕고는 서울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기본 지원자격으로 하지만,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자도 지원할 수 있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서울에 거주하는 자와,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과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자도 지원 가능하다. 자사고가 없는 시도 중 서울교육감에게 협의한 지역(경남 제주 세종)의 중학교 졸업자(학력인정자 포함)과 졸업예정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도 지원자격을 충족한다. '서울시 거주하는 자'는 원서 접수일 기준 전 가족이 서울시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사통은 공통자격에 더해 별도의 추가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크게 기회균등과 사회다양성으로 구분한다. 기회균등을 1순위로 60% 우선선발하고 이후 우선선발되지 않은 기회균등 지원자와 사회다양성 1순위 대상자를 선발하며, 여기까지도 미충원일 경우 사회다양성 2순위를 선발하는 식이다.

기회균등 지원자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 제외) 또는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등이다.

사회다양성 지원자격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로 나뉜다. 1순위에는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특수교육대상자 도서/벽지중학교졸업예정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자녀 순직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자녀 다자녀(3자녀이상) 등이 해당한다. 2순위 지원자격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군인자녀 경찰자녀 소방공무원자녀 환경미화원자녀 등이 있다. 사회다양성 지원 시 순위 구분 없이 중위소득 16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서울형 자기주도학습전형.. 1단계 추천, 2단계 면접>

서울 광역자사고인 선덕고는 서울형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1단계 1.5배수 추천, 2단계 면접의 단계별 전형으로 비서울 광역자사고와 달리 중학교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단 일반전형 지원율에 따라 전형방법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지원율이 100% 이하일 경우, 즉 각 고교의 일반전형 모집인원보다 지원인이 적을 시 추천/면접 없이 전원 합격된다. 100~120%일 경우 면접 없이 추천으로만 선발하며 120~150%일 때는 반대로 추천을 생략하고 면접을 치른다. 150%를 초과했을 경우에만 추천과 면접을 모두 진행한다. 사통은 지원율과 관계없이 일반 선발방식을 따른다. 사통 지원율이 100%가 넘는다해도 일반 지원율이 100% 이하일 경우 추천/면접 없이 전원 합격 처리되는 식이다.

면접에선 크게 자기주도학습/인성 두 가지 영역을 평가한다. 자기주도학습영역에서는 자기주도학습과정과 지원동기/진로계획을 본다. 세부적으로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계획 후 학습실행까지의 과정과 느낀 점, 학교 건학 이념과 연계해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계획 등을 검증한다. 인성영역에서는 자소서와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기재된 봉사 및 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나눔/협력/타인존중/규칙준수 등에 대한 학교 활동 실적, 학교에서의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을 반영한다.

면접자료인 자소서 역시 자기주도학습/인성 2개 항목이 잘 드러나게 작성해야 한다. 영역 구분 없이 1200자 이내로 작성한다. 평가 항목과 기준은 2단계 면접과 동일하다. 자소서 기재 시 각종 인증 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배제 사항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우회적)으로든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원자 본인이나 출신 학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부모나 친인척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했을 경우도 감점 등 불이익을 받거나 0점 처리된다.

<원서접수 12월3일부터 5일까지>

원서접수는 12월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다. 지원자 전원 5일 오후5시까지 자소서 학생부 수험표를 제외한 1차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선덕고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면접대상자 추천은 9일 오후2시에 실시하며 면접대상자는 12일 오전10시까지 자기소개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2차 서류제출이 진행된다. 학생부와 수험표를 10일, 11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방문접수해야 한다. 이후 20일에 면접을 치르고 26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